4·3과 오월 잇는 '필름정거장' 음악이 함께하는 이강하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연극 '…모단걸다이어리' 새단장
15년차 재즈밴드 '프렐류드' 공연
인기 영화 OST 앙상블 연주

지난해 광주극장에서 열린 '필름정거장' 중 공연 '뮤직 시네마천국'의 모습.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30일 광주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먼저 영화를 즐기는 영화로운 시네마천국 '필름정거장'이 광주극장과 극락강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극장에서 진행하는 필름정거장에서는 'Dark Movie Tour'라는 주제를 통해 4월의 제주에서 5월의 광주를 잇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다.

영화 프로그램은 제주 4·3항쟁을 배경으로 폭도로 몰린 주민들이 동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흑백영화로 그려낸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이 상영된다. 전시 'Black Ribbon'에서는 제주 4·3항쟁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전시를 볼 수 있고, 공연 '극장전'에서는 제주의 4월과 광주의 5월을 기리는 '오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메이커스 스테이션'에서는 동백브로치를 만드는 '쏘잉 클래스' 등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 2017년 광주극장에서 시작한 '필름정거장'은 이번 2018년 광주극장과 더불어 작은 간이역 극락강역의 이야기까지 광주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찾아가고 있다.

2018년도 '필름정거장'은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6월 27일, 7월 25일, 10월 31일, 11월 28일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8월 29일과 9월 29일에는 극락강역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문의 062-366-1895.

양림동 전역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복합마을축제 '1930양림쌀롱'은 광주의 근대(1930년대)를 소재로 음악, 연극, 전시, 마켓, 패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여행자 플랫폼 '양림쌀롱 여행자라운지', '광주 남구 이강하미술관', '박구환 갤러리' 등 양림동에 새롭게 문을 연 다양한 문화공간들도 함께 참여한다.

1930년 광주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고민과 사랑이야기를 다룬 연극 '1930모단걸다이어리'의 세 번째 시즌공연도 이날 첫 공개된다. 특히 이번 달에는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가로 여성들의 단발을 주장했던 실존인물 '주세죽'이 연극의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한다. 오후 6시부터는 등장인물들의 개인 단막극이 짧게 진행되며 8시부터 전체극이 진행된다.

'프렐류드'

이밖에도 제휴카페에서 전용 텀블러에 차를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마음껏 커피데이'를 비롯해 이강하미술관에서 즐기는 '미드나잇 인 뮤지엄', 호랑가시나무언덕에서 매력적인 수공예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양림홀리마켓', 이색가이드와 함께하는 야간테마투어 '양림달빛투어', 재즈밴드 무드리스트, 싱어송라이터 로든, 환상보컬 T-VOICE 등이 참여하는 '쌀롱콘서트' 등이 열린다. 방문객들은 '양림쌀롱 텀블러'(1인 7000원)를 구매하면 제휴 카페의 커피와 음료를 최대 3잔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의 070-4239-5040.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5월 공연은 재즈 콘서트 '프렐류드×김혜미 CITY of STARS'다.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은 15년 넘게 재즈 팬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렐류드가 무대에 선다. 프렐류드는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퍼포먼스를 전공한 재즈 뮤지션들로 지난 2003년 결성됐다. 현재까지 열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했으며 현재 리더 고희안(피아노), 최진배(베이스), 리차드 로(색소폰) 등 창단 멤버와 새로 영입한 한웅원(드럼)까지 4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렐류드의 대표곡인 'Breeze on My Face', 'Pop Up'를 비롯해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넘버인 '12th Street Rag', 'Si Tu Vois Ma Mere', 'What a Wonerful World' 등을 연주한다. 뿐만 아니라 'Another Day of Sun', 'City of Stars' 등 영화 '라라랜드'의 수록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김혜미가 협연자로 등장한다. 김혜미는 2007년 발매한 첫 가요음반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 신인 음반상을 수상한 이후 재즈 가수로 전향해 활동중이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7.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5월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프로그램으로 필리아앙상블의 '영화음악 OST 스페셜' 공연을 선보인다. 3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중 'Theme from mission impossible', '라라랜드' 중 'City Of Stars', '올드보이' 중 'The last waltz' 등을 만날 수 있다. 배희재(바이올린), 박소현(플루트), 김도희(클라리넷), 김지은(피아노), 신세민(비올라) 등이 출연한다.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은 공연장 객석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며 관람객 전원에게 공연 후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상만 신임 광주시립극단 감독
체계적 연기 교육·공연 상설화
6월3일까지 '멍키열전' 배우 공모

"연극만이 아닌 문화관광 정책과 광주형 킬러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광주시립극단 나상만<사진> 신임 예술감독은 28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만의 색깔이 담긴 킬러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신임 감독은 35년 전 광주시립극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며 연출 및 단원 훈련을 맡았다. 당시 무등 도서관 강당에 소극장도 개설하고, 젊은 단원들과 함께 열심히 연극을 만들어 서인지 광주와 광주시립극단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오래전 광주시립극단이 해체된 이후 재창단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최근 겪은 파행까지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왔습니다. 시립극단의 명예회복과 광주연극의 굳건한 토양 구축에 열정을 쏟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극단답게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나 신임 감독은 지역 연극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품 만들기에만 역량을 쏟지 않고 체계적인 연기훈련과 재교육을 토대로 작품성과 연기력이 결합된 작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세계 연극사는 '스타니스랍스키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로 양분됩니다. 스타니스랍스키는 연극교육과 창조방법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이죠. 광주시립극단 작품에도 스타니스랍스키 연기론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기는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그저 선배들에 의해 전승돼왔어요. 이제는 배우들에게 스타니스랍스키 연기론을 적용한 훈련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스타니스랍스키 시스템에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요소들을 첨가할 생각이죠."

나 신임 감독은 계획하고 있는 작품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극단의 방향을 특성화, 융합화, 전문화, 글로벌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오는 9월 6일~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1회 정기공연에 '멍키열전'을 올릴 예정이다. 문학작품 속 '원숭이' 주인공들을 매개로 연출했던 작품인 만큼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또한 '우덜은 하난 기라'를 개작한 '달빛 행진곡'을 올 겨울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에는 뮤지컬 '김대중'을 아시아문화전당 또는 대형 기획사와 공동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수시공연으로 '전우치' 시리즈와 기존 시립극단에서 공연했던 작품 중 베스트를 하나 골라 직접 연출해 새롭게 선보이는 것도 극단의 목표다.

나 신임 감독은 "단발성 공연이 아닌 상설화를 위해 해외 공연과 타 지역 순회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작품, 관광객 유입을 위한 킬러콘텐츠 공연, 일반 극단에서 제작하기 힘든 명작 시리즈, 특수 계층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3년만의 귀향인 만큼 문화수도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문화관광정책과 킬러 문화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신임 감독은 무안 출신으로 목포 문태고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러시아 국립예술원에서 예술학 박사를 받았다. 광주시립극단 상임단원을 거쳐 슈우킨 연극대학 교수, 숭실대학교 주임교수,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한편 광주시립극단은 제11회 정기공연 '멍키열전(나상만 작·연출)'에 출연할 배우들을 전국 공모한다. 연극 '멍키열전'은 모스크바 슈우킨 연극대학 창설 100주년 축하공연으로 기획된 드라마틱 토털 퍼포먼스다. 그동안 서울극단 '제5스튜디오'와 '대구시립극단'에서 제작, 공연돼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16명의 배우들을 모집한다. 지역 배우와 타 지역 배우들을 1대 1 비율로 선발해 연습을 거친 후 오는 9월 6~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 오를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3일이며 오디션은 5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진행한다. 문의 062-511-275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